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아하! 복식부기 이렇군요!”

행정자치부 서기관 | 정 윤 한

## 제 6 강

### 복식부기와 가치창출행정

#### 1. 생존부등식

##### 1. 독서 성향이 변화

특정인이 주로 어떤 책을 읽는가가 독서 성향이라고 한다면 필자의 독서성향은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큰 변화가 있다.

그 이전에는 사회과학이나 시나 소설 같은 문학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복식부기를 하면서 소위 돈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게 되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정말 돈과 관련된 책이 많이 있다. ‘10억 만들기’를 기본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회계지식이 기업경영의 기본’, ‘재무제표를 알아야 성공한다’ 등 정말 많은 돈과 부자되는 방법과 관련된 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동안 별로 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이다. 정말 복식부기를 담당함으로써 관심의 지평이 바뀌게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참말인 것 같다.

그런데 돈과 관련한 책들의 문제점은 깊이 있는 철학이 없이 개인의 부를 어떻게 이룰까와 기술적으로 돈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 중심으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대부분이 외국의 서적을 번역한 것이다. 특히 경영과 관련해서는 필자도 읽은 바 있는 피터 드러커를 비롯한 수많은 책들이 정말 외국서적 일색이다. 그러던 중 어느 서점에서 우연히 책 한권을 읽게 되었는데 출판사도 유명하지 않고 책 편집도 별로 인 것 같았는데 이 책을 읽고는 필자의 공직관이 새롭게 다져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책은 '경영학의 진리체계' 라는 것인데 윤석철 교수님이란 분이 쓰셨다. 그 분을 사진으로만 봤지 한 번도 강의를 들어본 적도 실물로 본 적도 없다. 나중에 서울대 졸업한 후배한테 물어보니 서울대 3대 천재 중 한 분이라고 하였다. 하여간 그 책을 다 읽고 제일 나중에 에필로그에 본인을 소개한 글을 읽고서는 정말 큰 감동을 느꼈다.

아마도 필자는 이 책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줬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전에는 운동주의 '서시', 김춘수의 '꽃', 엘리와르의 '이곳에 살기 위하여' 등 주로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은 했었다.

멀리 생각도 틀린 외국의 학자들 책이나 번역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보는 것 보다는 윤 교수님의 책 내용대로 우리나라의 경영 철학과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최고의 선진국이 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 2. 가치경영과 생존부등식

윤석철 교수의 경영철학을 본인이 달리 뭐라 말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필자는 가치경영의 실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핵심이 가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필자는 전에 쓴 글에서 말한 것 같다. 특정한 자산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해에 창출된 가치가 비용보다 더 커야 자산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윤석철 교수님의 "경영학의 진리체계"에서 소개된 글을 참고하여 서술하도록 하도록 하겠다.

기업이 창립되어 생존을 지속해갈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

미국 <포천>지가 매년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중에서 지난 30년간 연속으로 등재된 기업은 5% 내외이다. 경험적인 자료에 의하면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10년간 명단에 남아있는 확률은 20% 정도이다. 20년 이상 100대 기업에 선정될 확률은 7%, 30년 이상은 2%에 불과하다.<sup>1)</sup>

기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표 아닌가 한다. 교육, 의료, 사회복지 사업 등을 통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역시 너무 냉정하게 판단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존을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 일환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엄연한 현실은 기업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조건을 기업의 생존부등식<sup>2)</sup>이라 한다.

생존부등식은 다음과 같다.

### V > P > C

'V는 P보다 크고 P는 C보다 커야한다' 는 것이 생존부등식이다. 여기에서 V는 Value, P는 Price, C는 Cost의 약자이다. V는 특정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치, P는 그 제품의 가격, C는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제품의 원가이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치는 그 기업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제품의 가치는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평가하는 것이다. 아무리 싼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그 가격보다 가치가 크다고 느끼지 않으면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생수가 한 병 있다고 하자 보통 슈퍼마켓에서 500원 한다. 이 제품이 팔리기 위해선 소비자가 이 가격보다 가치가 크다고 느껴야 산다. 만일 이 생수가 사우나를 막 마친 사람과 시원한 그늘에서 수박을 실컷 먹고 나온 사람 간에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략 사우나에서 나온 사람은 한 병에 1000원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고 수박을 실컷 먹은 사람은 한 100원 정도 생각할 것이다. 당연히 사우나 다녀온 사람은 이 제품을 사서 마시고, 수박 먹고 온 사람은 이 제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제품의 가치는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그 제품을 소비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제품 소비의 효과를 파악해보자.

사우나 다녀온 소비자는 최대 1000원의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제품을 소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지불한 가격은 500원이므로 마음속에는 500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1) '06, 김상범<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2) 경영학의 진리체계 130p, 윤석철, 경문사, 2001

이것을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또는 소비자 순혜택(consumer's net benefit)이라 한다. 이 소비자 잉여가 클수록 소비자의 구매욕은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이 소비자 잉여가 제품을 팔리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무리 제품이 좋고 싸다고 할 지라도 그 물건을 소비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생존부등식 가운데 왼쪽 부등식  $V > P$  는 제품을 팔리게 하는 강도를 보여주며 이 영역에 의해 기업의 효과성이 결정된다. 가치를 가격보다 크게 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는 게 기업의 기본활동이다. .

한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원가는 가격 보다 적을 때 기업의 이윤이 생긴다.

$P > C$ 라는 오른쪽의 부등식은 제품의 가격보다 원가가 적을수록 기업의 이윤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생산자 잉여(producer's surplus) 또는 공급자 순혜택(supplier's net benefit)이라고 한다.

생산자 잉여는 이윤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생산성, 효율성의 영역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이윤을 크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영효율을 추구하고 제품 개발에 혁신을 경주 하는 이유이다.

제품의 가치와 원가와 사이의 제품에 가격이 위치해야 그 제품은 팔리고 아울러 적당한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등식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제품이 팔리고 기업은 이윤을 축적하게 되어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끊임없이 제품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소비자 잉여를 크게 하고 원가 절감, 경영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이윤을 크게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 3. 행정과 생존부등식

기업의 생존부등식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기업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V$ 는 행정서비스의 가치이다.  $P$ 는 행정서비스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C$ 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원가를 말한다.

행정이 의미 있게 지속되려면 기업과 동일하게  $V > P > C$ 의 부등식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좌측의  $V$ 는  $P$ 보다 커야한다는 의미는 행정서비스의 가치가 주민이 내는 세금보다 더 커야지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해 만족해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서비스는 기업과 다른 특성이 있다. 기업에서는 특정 제품을 맘에 안 들면 다른 제품을

소비하거나 아예 소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행정서비스는 주로 공공재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다른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생신고를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가? 아마 과태료를 물던지 하여 소비를 강제하게 할 것이다.

하여간 행정 서비스의 경우 소비가 강제되어 있고 다른 대체재는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서비스의 가격은 개별 서비스별로 특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적재는 개별 제품별로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데 비해 공공재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능력에 비례하여 세금의 형태로 총괄적으로 지불하는 특성을 갖는다. 내는 세금은 동일해도 사람마다 공급받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은 제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큰 특징이다. 이러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거의 공짜로 받는 경우는 행정에 대해 무척 만족할 것이고 아무리 많은 세금을 내도 제공받는 서비스가 엉망인 경우에 그 주민은 불만이 가득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 제품을 안살 수도 없고 해서 항상 행정개혁을 외치게 되는 것 같다.

한편 부등호의 오른쪽  $P > C$  보다 큰 영역은 행정서비스의 가격은 행정서비스 창출에 소요된 비용보다 커야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해석이 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균형재정을 지향한다. 정부가 행정서비스 원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나중의 지출에 대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전재정, 균형재정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부분이 기업의 경우 이윤극대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중의 하나는 행정서비스의 가격만큼 일한다는 것이다.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은 한편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고 서비스의 가격과의 차이를 크게 해서 더욱 큰 이윤을 얻으려는 것인데 이러한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가절감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가끔 이런 농담을 한다.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면 지금은 인원과 조직을 늘린다. 이로 인해 들어가는 인건비가 100이라 하자. 이때 만일 새로운 인원을 뽑지 않고 그 일을 옆의 공무원에게 30을 더 줄테니 이 일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면 거의 다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자기의 하던일 중에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그 새로운 일을 잘 하도록 노력할 거라는 것이다. 이걸 누가 주장한 것은 아니니 “정윤한의 법칙”이라고 해두자. 70을 절감하면서 일을 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의 특수성이라던가 보수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점, 민간 기업식으로 쉽게 성과급을 주는 것이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등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민간과는 차이가 있지만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제도적 유인구조가 없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 II. 행정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의 생존부등식 확보방안

### 1.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필자가 동장으로 일할 때의 이야기다. 당시 동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중 인상적인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의 행동이 극과 극이라 기억에 오래 남아 있다.

한 분은 할머니였는데 혼자서 동사무소 바로 뒷골목 반지하방에서 살고 계셨다. 이분은 중풍에 걸려서 몸 한쪽이 좀 불편하고 거동에 지장이 많으셨다. 그런데 동네 순찰이라도 돌라고 그 뒷길로 가면 이 분은 양지바른데 앉아 계시다가 불편한 몸을 일으켜가며 동장인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당시 젊은 사람으로서 참 송구스러웠다. 이분은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평생을 홀로 지내셨는데 얼마 전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항상 불편하지만 해맑게 웃어주시던 모습이 생각났다.

다른 분이 계셨다. 한 일혼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실태 파악과 인사도 여쭙 겸 가정방문을 하였다. 방문을 두드리니 “누구요?”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면서 “안녕하세요? 동장인데 어르신 어떻게 지내나 인사 좀 드리러 들렀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 분은 화를 벌컥 내면서 “인사는 무슨 놈의 인사, 쓸데없이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하는 것이 아닌가. 참 사람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왜 이렇게 정부로부터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확인을 해보니 할머니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이후 평생 행정의 도움을 받고 사셨다. 그러니 사회복지 담당이라도 만나면 정말 그 직원을 마치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하는 분이셨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이분은 수급자가 되기 전에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경영하던 사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IMF 시절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고 술로 거의 매일을 보낸다고 하였다. 이분은 정부에 대해 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자기가 사업을 할 때만해도 온갖 세금과 불우이웃 돕기 등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등 소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는데 사업이 실패한 후에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회사 사장 시절의 용돈도 안 되는 돈을 받게 되니 정부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갖게 되었고 공무원이라도 불러치면 그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두 분의 경우 동일한 행정서비스의 가치(V)에 대해 할머니가 지불한 가격(P)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것이고 할아버지가 지불한 가격(P)는 세금이다 기부금이다 해서 정말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니 V~P의 차이의 크기인 만족도의 정도가 다른 것이다. 만일 V~P가 마이너스라면 행정에 대한

욕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 2.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공무원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생산자)이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서비스)를 국민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일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행정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구체적인 숫자로 알 수는 없지만 가격보다는 커야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입장에서 생존부등식을 재해석해 보자.

$V > P > C$ 에서 좌측의  $V > P$  부분은 내가 하는 일에서 나오는 가치는 내가 받는 급여보다는 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받은 월급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서비스의 대가가 임금인데 민간기업의 경우 만일 근로자가 받는 임금보다 더 적게 일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해고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직보다는 해고하기가 더 쉽다.

그런데 공무원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고 또한 제품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과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특정한 서비스는 다른 국민의 희생을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집단 간,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 참여된 이해관계의 충돌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점이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의 예와 같이 두 가지 상반된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다수의 국민과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부등식의 오른쪽인  $P > C$  부분을 생각해 보자.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주어진 조건이라 한다면 최대한 원가를 줄여서 이익의 폭을 크게 하려고 한다. 항상 가격은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제품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커야 소비자의 구매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것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제는

원가를 줄여서 적정 이익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 경영혁신, 기술혁신, 신기술 개발, 유통구조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문제는 정부부분인데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공무원의 월급은 정해져 있다는 두 가지 큰 조건이 원가를 줄이려는 유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가는 경쟁이 이뤄질 때, 자기의 밥그릇이 줄어들 때 눈에 불을 켜고 줄이려는 경향을 갖는다.

행정서비스의 독점적 성격, 개별적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지불이 아닌 소득 능력에 비례한 세금 납부체제, 정부업무의 비영리성, 법적으로 정해진 공무원 월급 등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의 생존부등식이 행정에 그대로 적용되기가 무척 어렵다.

### 3. 행정서비스에서의 생존부등식 확보 방안

행정의 큰 철학이 민주성과 효율성이다.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하지 않은 행정체제를 갖는 국가는 생존이 힘들거나 국제적 경쟁질서에서 뒤쳐져서 국민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낮아지게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철학이 없는 것일까? 시장에서도 민주성과 효율성의 법칙이 적용한다.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기업만이 생존한다. 시장에서의 민주성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비자 주권이라 한다. 당연히 효율성은 시장의 제1원리로 작용한다.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담보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은 낙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동시 충족은 곧 기업의 생존부등식을 충족시키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그러면 행정에서의 민주성은 무엇인가?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를 경우가 많다. 필자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 주변 친지들은 공무원에 대해 무조건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기 일쑤였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이 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근하고 심지어 맑게 개이고 따스한 봄날 나들이 가기 좋은 시절에 산불 날까봐 대기하는 공무원들이 있음을 알고는 상당히 불만이 줄어들었다.

특히 공무원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일을 했는지를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행정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결산서를 보고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고 다른 필요한 일을 요구하는 등 행정에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투명한 재무보고서의 제공은 한편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효율적 시장의 기본원칙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왜곡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것이란 조건을 필요로 한다.

효율성의 기본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주어진 가격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을 때 공급주체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효율성은 정보가 공개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한 서비스를 얼마나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제공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능하게 된다. 도로, 공원 등 각종 시설 물들과 청사, 도서관 등 각종 건축물 들 홍보, 운영비 등 각종 비용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히 제공하고 그 단가들을 비교할 수 있을 때 다른 기관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행정시스템에서 이러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물론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명쾌하게 어떤 제도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필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말로 기업의 생존부등식을 행정에 적용하는 기본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무적 정보를 투명하게 회계원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제공하고 공무원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려는 유인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바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인 것이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주로 예산에 초점을 맞춰서 일 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꾸려왔다. 회계는 집행과정의 큰 불법이나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는가와 집행실적을 확인하는 정도의 때로는 의례적인 통과절차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에서는 계획측면에서의 예산과 결과정보의 확인 차원의 회계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면서 정부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Ⅲ. 복식부기의 힘

이번이 올 한해 복식부기 연재의 마지막 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 일선에서 애써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업무담당자가 Daum 커뮤니티에 카페(샤데팡)를 개설하여 정보제공과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기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하고서 연재의 글을 마치려 합니다. 

### 복식부기의 힘(글쓴이 : 백기사)

어제 우리시 상반기 혁신 학습동아리 연구과제 발표 경진대회 있었습니다.

결산 합동작업하다 말고 올라와 발표했는데 회계과 팀이 2등해서 상금 50만원 받았습니다.

연구과제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내용은 업무용 신용카드 의무사용 과목을 현재 급량비, 업무추진비 2개 과목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료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까지 확대하면 연간 1,794만포인트(1포인트=1원)가 추가 적립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총액의 30%까지 의무사용토록 경우 2억5천만 포인트 적립되며 그 외 회계서류 감축 등 업무프로세스도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자랑 같지만 우리 팀에서 작년부터 자료 발표한 것이 모두 3건인데 1등 2번, 2등 1번 했습니다.

‘회계과 때문에 동아리 할 기분이 안 난다’는 타부서 푸념이 나옵니다. 저도 총무과 등 여러 부서 있으면서 보고서를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만 복식부기 업무 맡고부터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면 확실히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시책효과에 “예산절감, 세수확대, 주민편익 증진...”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한 표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연간 1,794만원 세입증가... 지출 2,800여건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9종→4종) 등 구체적인 비용, 수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용, 월가, 이런 단어들은 천성적으로 ‘두루뭉술한 것’ 하고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다른 보고서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두는 것 같고... 가이버님이 언젠가 얘기하던 “복식부기 근무자체가 큰 혜택이다.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큰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요즘 무척 실감납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에게도 복식부기의 힘이 어느새 알게 모르게 배여질 것입니다.